

# 해남군민 84% “재난지원금 경제 도움”

군, 2016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 “매출·지출 증가”  
미수령자 19일까지 2차 신청 접수



해남군은 지난달 해남읍사무소 등에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해남군이 전체 군민에게 지급한 해남형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삶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나 지출이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군민 2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해남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8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17%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또는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느낀 응답자는 87%에 달했

며, 이 중 “3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군민은 34%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총 3만5241세대, 6만666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 미수령자 3284명에 대해 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해 최대한 많은 군민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방역뿐만 아니라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무안군, 국·도비 건의사업 83개 5144억 발굴

2차 보고회...예산 확보 선제적 행보

무안군이 올해 국·도비 건의사업으로 83개 사업(5144억원)을 발굴했다.

무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산 군수를 비롯해 국·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차 보고회에서 48건 3023억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무안군은 이번 2차 보고회에서는 35건 2121억원의 신규 및 계속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무안군은 총 83개 사업 5144억원 규모를 확정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사업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인 ‘영산강 철도마을로 떠나는 꿈여행’ (100억원), 창포호 비점오염저감 사업 (100억원), 남악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0억원),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100억원), 어촌어항 재생사업(378억원) 등이다. 앞서 지난 1차 보고회에서는 오룡 복합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 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양파·마늘 전 과정 기계화 사업 등이 보고됐다.

무안군은 주요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빠지지 않고 응모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산 군수 주재로 ‘2022년 제2차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 목포 9개 성당도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목포 기독교교회연합회에 이어 9개 성당에서도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했다.

목포시는 경동·대성동·북교동·산정동·연동·연산동·용당동·육암동·하당성당 등 목포지역 9개 성당이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성당은 목포시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저희 몫으로 돌아올 지원금을 더 어려운 다른 곳에 사용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행정당국의 시정에 적극 협조하며, 고통을 감수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과 자체 방역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시에서는 앞서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에서도 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중대형 교회들도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성금을 더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한편, 목포시는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종교시설 550곳에도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 무안 회산백련지, 진객 큰고니 150마리 ‘순백의 장관’

물 빼지 않아 먹잇감 풍부

아시아 최대 백련 자생지인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천연기념물 큰고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일로읍 회산백련지에 큰고니 150여마리가 무리를 지어 찾아와 월동 중이다.

하얀 털과 긴 목이 특징인 큰고니는 천연기념물 201-2호로 지정돼 있다. 몸길이 약 1.5m, 펼친

날개의 길이는 2.4m로 암수 모두 순백색이다. 평소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툰드라 지대에서 번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 한국, 일본, 지중해 등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큰고니가 회산백련지를 월동장소로 찾은 것은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안군은 그 동안 연꽃 개화를 돕기 위해 겨울에 연지의 물을 빼고 땅을 굳히는 과정을 반복해 왔으나 올 겨울에는 연지 수위와 연꽃 개화가 크

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물을 빼지 않았다. 그 결과 큰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가 풍부한 백련지로 찾아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평화와 풍년을 상징하는 큰고니가 회산백련지에 찾아와 순백의 장관을 펼치고 있다”며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큰고니처럼 무안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영광통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광주송정역으로 이전

광주~영광 간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운영 중인 영광통(광주 광산구 송정동) 간이정류장이 광주 송정역으로 통합 이전한다.

영광군은 영광, 법성, 흥농 시외버스 영광통 간이버스정류장을 폐쇄하고 대신 광주송정역 앞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교고속과 노선변경 협의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과 시설 노후 등으로 불편이 컸던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영광통 정류소를 이용하던 영광방면 버스 이용

객들은 3월 1일부터 광주송정역 앞 정류소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광주(송정역)에서 영광노선은 하루 17회 운영중에 있으며 영광통에서 14회, 송정역 앞에서 3회 정차했다.

정류소 통합으로 광주송정역 고속철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버스나 지하철·택시 등을 환승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고 역 주변상권을 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B  
Nim e Bnong Solar Energy

상담전화